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가장 힘들고 절박한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OS 복지지원사업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은 김은석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특이 질병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19 이후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눈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심하게 나빠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명 위기라는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 심사를 다시 받았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받아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어렵게 정부 긴급지원금을 3개월간 받았지만, 임대료도 계속 밀려 있었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내지 못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살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돈이 없어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 저는 우울증으로, 아들은 무기력증을 겪으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산재단에서 보내주신 생활비로 밀린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내고 생필품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도 힘을 얻었고, 생활비를 아껴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손녀에게 맛있는 것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아산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은석 드림

